일만천년 천손민족(天孫民族)의 역사

(2012년 10월 증보판)

지리산 천왕봉에 있었던 우리의 시원 마고(麻姑)

우리역사의 비밀(www.coo2.net)

서 문

우리민족은 올해로 '11,14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명문의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천손민족(天孫民族)입니다.

일만천년전부터 우리민족은 북극성에 계신 마고님의 얼을 받아 북두칠성에서 온 천손민족(天孫民族)이라 사서에서 전하고 있답니다.

본 책은 부도지·한단고기·규원사화·단기고사 등 수많은 민족사서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요약·정리하여,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우리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은 천손민족의 역사 홍보책자입니다.

이 책을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는 주변에 '꼭' 홍보하시어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역사를 전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민족의 시원에 등장하는 마고나 삼신의 '복(復)'이 이 책을 보고 전파하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듬뿍 내릴 것입니다. * 복(復) : 운영 프로그램

수증자강(修證自强) 불식복본(不息復本)! 감사합니다.

* 수증자강(修證自强) 불식복본(不息復本) : 나를 닦기를 열심히 하여 증빙을 받아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마고의 역사 복원에 쉬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복본(復本) 할 것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고기원 11,149년 음력 8월 15일(양력 9월 30일)

우리역사의 비밀(www.coo2.net) 송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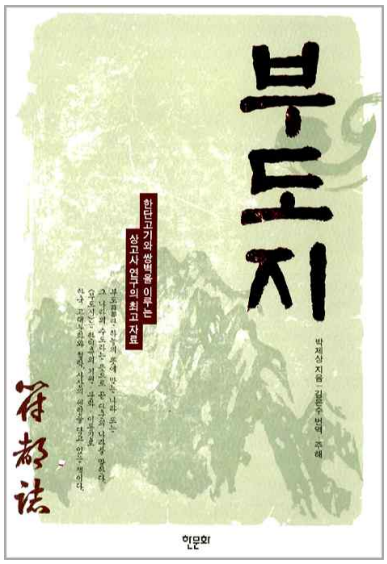
* 목　차 *

	서　　문	1 페이지
1.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4대 민족사서	
	1) 부도지	4 페이지
	2) 규원사화	5 페이지
	3) 한단고기	5 페이지
	4) 단기고사	8 페이지
2.	우리민족은 어디에서 왔는가?	
	1) 북극성	9 페이지
	2) 북두칠성	10 페이지
3.	새로 밝혀진 천손민족의 연표	
	1) 마고시대	12 페이지
	2) 한인시대	13 페이지
	3) 한웅시대	13 페이지
	4) 단군시대	14 페이지
4.	시대별 발간 역사서 목록	
	1)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15 페이지
	2) 고조선 시대의 역사서 목록	16 페이지
	3) 삼(사)국시대의 역사서 목록	17 페이지
	4) 발해, 통일신라, 고려의 역사서 목록	18 페이지
	5) 근세조선의 역사서 목록	19 페이지
5.	시대별 역사 요약	
	1) 마고시대	20 페이지
	2) 한인시대	26 페이지
	3) 한웅시대	29 페이지
	4) 단군조선시대	35 페이지
	* 북부여 시대	49 페이지

1.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4대 민족사서

* 부도지, 규원사화, 한단고기, 단기고사

1) 부도지(符都誌)



신라 충신 박제상 선생(AD 363 ~ 419)이 관직에 있을 때 열람한 자료와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던 비서(秘書)를 종합·정리하여 저술한 징심록(澄心錄) 15지중 상교 첫 번째 책이다.

'부도지'는 우리역사를 '마고-궁희-황궁-수인(유인)-한인-한웅-단군'으로 이어지는 일만천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징심록 전체의 줄기를 요약해 서술하고 있다.

* 부도지 출판 : 한문화, 번역 김은수

현재 알려진 '부도지'는 1953년 영해박씨 문중의 박금씨가 북한에서 징심록을 번역하고 연구하던 기억을 되살려, 울산의 피난소에서 거의 원문에 가깝게 되살려낸 것이다. (* 최근 저자가 없는 더 오래된 별도 판본이 존재한다는 소식이 있다)

박금씨는 '부도지'를 해방 후 월남할 때 함경도 문천의 금호에 있는 금호종합이학원에 남겨두고 내려왔다고 하니, 그 진본이 꼭 발견되길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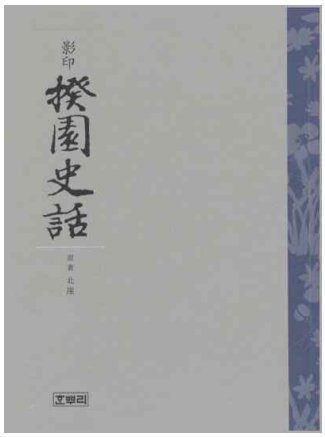
*** 징심록(澄心錄) : 3교(敎) 15지(誌)**

① 상교(上敎) : 부도지(符都誌), 음신지(音信誌), 역시지(曆時誌), 천웅지(天雄誌), 성신지(星辰誌)
② 중교(中敎) : 사해지(四海誌), 계불지(禊祓誌), 물명지(物名誌), 가악지(歌樂誌), 의약지(醫藥誌)
③ 하교(下敎) : 농상지(農桑誌), 도인지(陶人誌), 식화지(食火誌), 궁성지(宮城誌), 의관지(衣冠誌)

*** 징심록에 얽힌 사연**

- 고려 태조 왕건 : 왕사(王使)를 영해박씨 문중에 보내 부도의 일을 상세하게 물었다 전함.
- 강감찬 장군 : 여러 차례 영해를 방문하여 조언을 구했다고 전함.
- 세종대왕 : 영해 박씨 종가(宗家)와 차가(次家)의 후예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성균관 옆에 거주하게 하고, 장로(長老)에 임명하여 편전(便殿)에 들게 하였고, 훈민정음 28자를 '징심록'에서 취본(取本)하였다고 김시습 선생은 증언함. (김시습 : 1435~1493, 조선 초기 생육신의 한사람)

2) 규원사화



북애(北崖)노인이 조선 숙종 2년(1675년) 3월경 저술한 책으로 '삼신-한인-한웅-단군'으로 이어지는 일만년 천손민족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책 구성은 조판기(肇判記), 태시기(太始紀), 단군기(檀君紀), 만설(漫說) 순서로 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현재 '진본'이 보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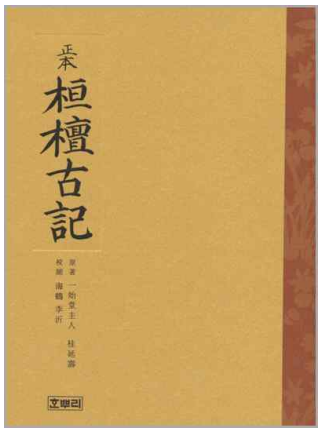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 규원사화 진본 도서목록 번호 : 貴 629 / 古 2105-1

진본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일부학자들이 '위서론'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진본 공개 후에는 일제히 사라졌다.

* 위서론의 대표적인 학자 : 조인성 (경희대 박물관장), 송호정(교원대 역사학과 교수), 송찬식(사망)

* 2010년 4월 16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오희복 교원(69)이 '규원사화'(揆園史話)를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를 통하여 번역·출판하여 공개하였는데, 북한은 이미 정규사료로 인정하고 있다.

3) 한단고기



1911년 운초 계연수(桂延壽) 선생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 4개 사서(史書)를 묘향산 단굴암에서 하나로 묶은 것이다.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운초 계연수 선생은 일제의 상고사 말살 정책에 의하여, 일제가 보낸 밀정에 의해 살해되어 1923년 어느날 대동강 변에 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고 만다.

이를 목격한 한암당 이유립 선생이 남하하여 스승의 유언대로 1979년에 한단고기를 공개하였고, 1986년 서울 인사동에서 일만년 천손민족의 역사를 강의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다.

* (사)한배달 박정학 회장의 증언

"1986년 4월 17일 저녁 7시 인사동 소재 당시 도서출판 고려원 사장(김낙천) 사무실에서 직접 한암당 선생을 모시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오후 9시 20분 즈음) '이것은 정말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요'라고 말씀을 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셨다.

재빨리 선생을 의자에 앉혀드리고 청심환을 드렸는데, 15분이 지나서도 깨지 않아 인근 혜정병원으로 옮겼다. 뇌출혈이었다. 중구 필동의 성심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 하루를 지낸 다음날 아침 잠깐 의식이 돌아오는 듯 했으나 낮 12시쯤 재차 진행된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그 상태로 자정을 넘기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운명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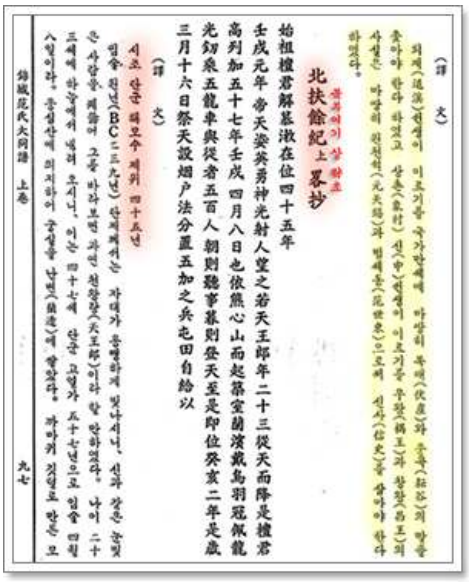
삼성기는 신라 승려인 안함로와 행적이 확실치 않은 원동중이 쓴 것을 각각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하여 합친 것으로, 한인· 한웅시대의 역사를 주로 담고 있다. 우리민족의 출발점인 한국시대 7대 한인 3,301년의 역사와 신시(배달)시대의 18대 한웅 1,565년의 역사를 주로 기록한 것이다. 하권에 신시 역대기 (배달국 18분의 한웅 역대기)가 덧붙여 있다. 저자인 안함로는 신라 승려 임이 증빙 되었고, 원동중에 대해서는 지금 행적을 추적 중에 있다.

단군세기는 고려때 행촌선생 이암 문정공이 전한 책으로, 1세 단군 왕검으로 부터 47세 단군 고열가까지 2,096년 동안 각 단군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편년체(연대순)로 기록했다. 고성이씨 문중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하여 이암 선생의 실존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암 선생은 고려말 즉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군 참모총장을 지냈을 정도로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이다. 더구나 '신라 김생, 고려 이암'으로 대표되는 최고의 명필가 중의 한분 이셨다.

행촌 이암선생의 묘지명을 고려 3은 중의 하나인 목은 이색이 지었는데, 목은 이색이 바로 행촌 이암 선생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 많지 않다.

필자가 이암 선생이 단군세기를 저술한 강화도 선운면 남산 해운당 병풍바위를 찾아 역사의 현장을 확인 한 바 있다.

* 고성이씨 문중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행촌 이암 선생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 (사)행촌학술문화진흥원 연락처 : 간사 이정호 017-320-0133, 현재 단군세기 복원작업 중


北扶餘紀上 略抄

始祖檀君解基淑在位四十五年
壬戌元年 帝天姿英勇神光射人堂之若天王郎年二十三從天而降是檀君
高列加五十七年壬戌 四月八日也依熊心山而起昂室蘭濟鼎鳥羽冠佩龍
光劒乘五龍車與從者五百人 朝則聽事暮則登天至是即位癸亥二年是歲
三月十六日祭天設烟户法分置五加之兵屯田自給以

북부여기는 고려말 학자인 범장이 전한책으로 북부여기 상권, 하권, 가섭원부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조 해모수로부터 6세 고무서까지의 북부여 204년의 역사와 가섭원부여 108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금성범씨 대동보를 통하여 휴애(복애)거사 범장이 실존인물임이 증빙되었고, 대동보에 '북부여기 약초(略抄)'가 기록되어 있어 내용이 실제 함을 확인하였다.

태백일사는 연산군과 중종때 학자인 이맥이 전한 책으로, 한국(桓國), 신시시대(神市時代)로부터 고려에 이르기 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삼신오제본기, 한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관경본기, 소도경전본훈,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 고려본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삼한관경본기에는 마한세가 상·하와 번한세가 상·하가 담겨있다.

특히 소도경전본훈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실어, 우리 민족의 정통적 종교와 철학 및 문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괴산 이맥 선생은 행촌 이암선생의 고손자이다. 태백일사에 단군세기만 빠져있는 것은 선조에 대한 예우 아닌가 생각한다. 고성이씨 문중의 지독한 우리역사 내리사랑은 필자의 눈시울을 적신다.

오래지 않아 최고본의 천부경 진본을 확인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4) 단기고사

단기고사는 발해 대조영의 아우 대야발이 발해문으로 727년에 쓴 책을 황조복이 825년 한문으로 옮긴 것이다.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949년 김두화, 이관구 선생에 의하여 국한문 혼용체로 소개가 된 책이다.

1912년 만주에서 단재 신채호, 이관구 두 분이 출간을 하려다 실패하기도 하였다. 중간서를 단재 신채호 선생이 기록하여 단기고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2. 우리민족은 어디에서 왔는가?

일만천년전부터 우리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시원에 대해 문헌으로 기록하여 전수하였다. 그것은 일만천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져 왔고 지금도 전수되고 있다. 아래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이 역사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존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힘든 사람은 넘어가도 좋은 페이지임을 미리 알려둡니다.

1) 북극성(北極星)

우주의 근원이자 우주를 운행하는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시원이자 창제주 마고(麻姑)님이 계신 곳입니다. 일만천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우리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 마고(麻姑) = 삼신(三神) : 麻 삼 '마' 자 이고, 姑는 '쿠'와 대응되는 '신'이라는 의미이다.

우리사서 곳곳에 우리민족이 북극성과 관련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고, 근세 역사 인물중에 하나인 징기스칸 역시 북극성의 자손이라 하였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 마고(麻姑)님이 계신 북극성(北極星)
 - 북극성은 보라색 형상이다. 우리민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색이다.

2) 북두칠성(北斗七星)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주를 좌측으로 운행시키는 보좌관이다. 북극성은 우주를 운행하는 힘의 근원이고 북두칠성은 우주를 운행시키는 실체이다.

우리는 북극성에 계신 마고님의 '얼'을 받아 북두칠성에서 왔다. 오래전 우리 어머님들이 치성빌던 대상도 북두칠성이었고, 죽어 돌아가는 곳도 우리의 본향 북두칠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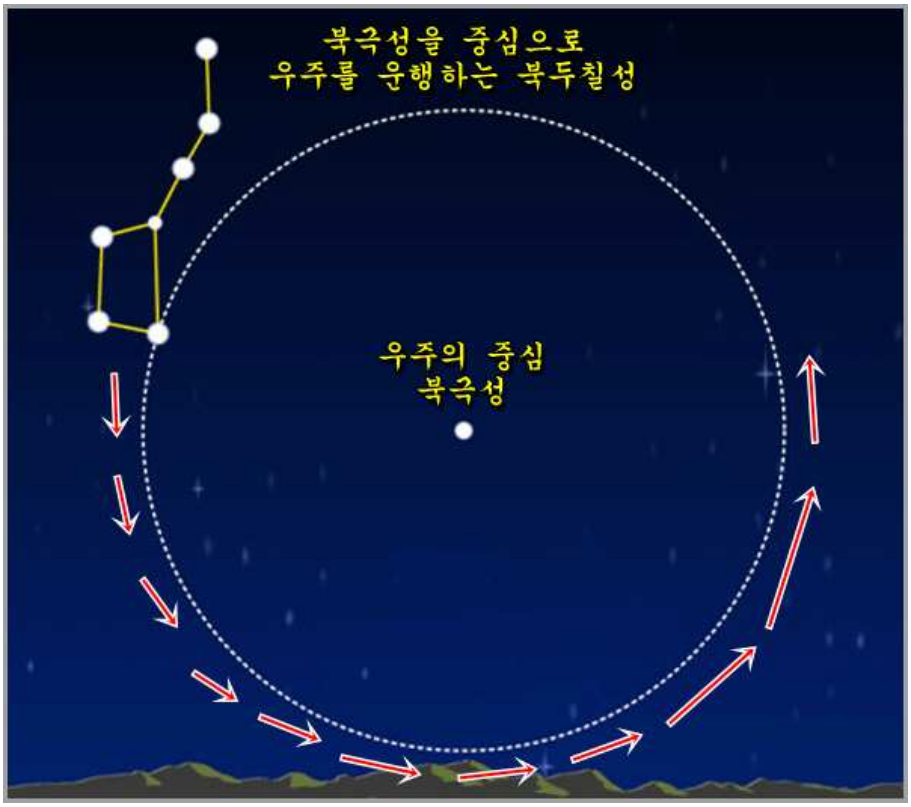
마을, 산 어귀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성황당(城隍堂)은 마고의 역사를 전수하던 교육장·마고사당이었고, 전국 사찰 뒤편 높은 자리에 위치한 삼신각(산신각)은 마고각이요, 칠성각은 우리가 돌아갈 근원을 모신자리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붕처마에 올라가 하늘의 북두칠성을 보며 외치던 '복' 이라는 세 번의 단어는 천손이 내려온 근본 북두칠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복(復)' 의 의미인 것이다.

상여는 부모님이 돌아갈 북두칠성의 하늘세계・하늘궁전을 표현한 것이요, 칠성판을 깔지 않으면 상여가 움직이지 않은 것 역시 칠성사상을 말한 것이다. 우리는 북두칠성에서 온 천손민족(天孫民族)인 것이다!

* 북두칠성(北斗七星)
 - 북두칠성의 형상 : 숟가락, 젓가락, '十', '卍', '刀', '匕'

* 북극성(北極星)을 보좌하여 우주를 좌측으로 운행시키는 북두칠성(北斗七星)



* 성황당(城隍堂)은 마고의 역사를 전수하던 교육장 · 마고사당

3. 새로 밝혀진 천손민족(天孫民族)의 연표(年表)

1) 마고(麻姑)시대

始 B.C 9,137 (11,149년전) 終 B.C 7,197 (9,209년전)

마고(麻姑)시대

마고(麻姑)	궁희(穹姬)	황궁(黃穹)	천산주(天山洲)	수인(燧因, 有因)
		청궁(靑穹)	운해주(雲海洲)	
	소희(巢姬)	백소(白巢)	월식주(月息洲) 지소(支巢)의 '오미(五味)의 변'	
		흑소(黑巢)	성생주(星生洲)	
시원	1세	2세		3세

* 우리역사 : 마고기원 11,149년, 한인시대 이전에 1,940년의 역사가 더 있었다고 기록.

- 부도지는 우리민족의 기원을 마고 → 궁희 → 황궁 → 수(유)인 → 한인 → 한웅 → 임검(단군)으로 계승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황궁씨로부터 수(유)인 → 한인 → 한웅 → 임검(단군) → 부루(2세) → 읍루(3세 단군 가륵)까지 7천년을 이어져 왔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 우리역사는 아래 표대로 11,149년(7000+2137+2012)이 된다.

구 분	연 도	비 고
황궁-수인-한인-한웅-임검-부루-읍루	7,000년	3세 가륵 단군까지
오사구 단군 (B.C2137)	2,137년	4세 오사구 단군부터
서기 2011년	2,012년	AD2012년
합 계	11,149년	

2) 한인(桓因)시대

始 B.C 7,197 (9,209년전) 終 B.C 3,897 (5,909년전)

한인(桓因)시대

안파견 (安巴堅)	혁서 (赫胥)	고시리 (古是利)	주우양 (朱于襄)	석제임 (釋堤壬)	구을리 (邱乙利)	지위리 (智爲利)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 끝자가 리(利)자로 끝나는 분은 여성(女性)으로 보여진다.

3) 한웅(桓雄)시대

始 B.C 3,897 (5,909년전) 終 B.C 2,333 (4,345년전)

한웅(桓雄)시대

거발환 (居發桓)	거불리 (居弗理)	우야고 (右耶古)	모사라 (慕士羅)	태우의 (太虞儀)	다의발 (多儀發)
B.C3897	3804	3718	3619	3512	3419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거련 (居連)	안부련 (安夫連)	양운 (養雲)	갈고 (葛古)	거야발 (居耶發)	주무신 (州武愼)
3321	3240	3167	3071	2971	2879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사와라 (斯瓦羅)	자오지 (慈烏支) 치우(蚩尤)	치액특 (蚩額特)	축다리 (祝多利)	혁다세 (赫多世)	거불단 (居弗檀)
2774	2707	2598	2509	2453	2381-2334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 14세 자오지(혹은 치우)한웅의 무덤이 산동성 동평에서 발굴되었고, 그 전쟁터가 하북성 탁록에서 발굴되었다. 단군왕검의 374년전 선조인 치우한웅의 유물발굴로 실존이 확인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한웅과 단군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다.

4) 단군(檀君)시대

始 B.C 2,333 (4,345년전) 終 B.C 238 (2,250년전)

단군(檀君)시대

왕검(王儉)	부루(夫婁)	가륵(嘉勒)	오사구 (烏斯丘)	구을(丘乙)	달문(達門)
B.C2333	2240	2182	2137	2099	2083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한율(翰栗)	우서한 (于西翰) 或曰烏斯含	아술(阿述)	노을(魯乙)	도해(道奚)	아한(阿漢)
2047	1993	1985	1950	1891	1834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흘달(屹達)	고불(古弗)	벌음(伐音)	위나(尉那)	여을(余乙)	동엄(冬奄)
1782	1721	1661	1610	1552	1484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구모소 (緱牟蘇)	고홀(固忽)	소태(蘇台)	색불루 (索弗婁)	아홀(阿忽)	연나(延那)
1435	1380	1337	1285	1237	1161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솔나(率那)	추로(鄒魯)	두밀(豆密)	해모(奚牟)	마휴(麻休)	나휴(奈休)
1154	1105	1062	971	943	909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등올(登屹)	추밀(鄒密)	감물(甘勿)	오루문 (奧婁門)	사벌(沙伐)	매륵(買勒)
865	849	819	795	772	704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마물(麻勿)	다물(多勿)	두홀(豆忽)	달음(達音)	음차(音次)	을우지 (乙于支)
646	590	545	509	491	471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물리(勿理)	구물(丘勿)	여루(余婁)	보을(普乙)	고열가 (高列加)	終
461	425	396	341	B.C295	B.C238
43세	44세	45세	46세	47세	

4. 시대별 발간 역사서 목록

부도지, 규원사화, 한단고기, 단기고사 외에 우리의 천손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시대별로 출간된 민족사서의 제목이 전해져 내려오는 바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본다.

1)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 조선왕조실록 세조 7권, 3년(1457) 5월 26일(무자) 3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노 원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수거령은 세 번 시행된다. 몰래 숨긴자는 참형에 처했다 : 세조 1457년 5월 26일, 예종 1469년 9월 18일, 성종 1469년 12월 9일

상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550여년 전만하여도 단군의 역사를 기록한 고조선 관련 기록이나, 단군이전 한인과 한웅의 역사를 기록한 삼성기 등 역사서들이 이땅에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조선 시대의 역사서 목록

사서명	세부내용	비 고
배달유기 (培達留記)	3세 단군 가륵(BC 2182)때 신지(神誌)인 고글(高契)에게 명하여 역사서인 배달유기(培達留記) 편수 → 고구려초 유기(留記) 100권 으로 전수 → 고구려말 AD600년 신집(新集) 5권 으로 전수 (영양왕 11년, 태학박사 이문진)	전하지 않음
신지비사 (神誌秘詞)	6세 단군 달문(BC 2083년)때 신지인 발리(發理)가 저술, 삼신께 제사지낼 때 서원(誓願)의 글 → 구변도국(九變圖局) 또는 진단구변도국(震檀九變圖局)으로 전수 * 권근(權近, 1352-1409) : '응제시'에 인용 * 권제(權踶, 1387-1445) : '용비어천가'에 인용 * 권람(權擥, 1416-1465) : '응제시주'에 인용	AD1412년 조선 태종 12년경 소각됨
해동비록 (海東秘錄)	저자, 연대 미상	AD1412년 조선 태종 12년경 소각됨

* 신집, 신지비사 발굴 가능성 높음

3) 삼(사,四)국시대의 역사서 목록

사서명	세부내용	비 고
개물교화경 (開物敎化經)	고구려 고주몽 찬	전하지 않음
신지비사역술 (神誌秘詞譯述)	고구려 대영홍 저, 단군조선의 신지비사를 해설한 책으로 보여짐	AD1412년 조선 태종 12년경 소각됨
징심록 (澄心錄)	3교(敎) 15지(誌)로 구성. AD419년 이전 신라충신 박제상이 기록한 책 → 현재 상교 제 1지인 부도지(符都誌) 필사본 전함	영해박씨 북한에 남겨 놓음
삼성기 (三聖記)	신라 승려인 안함로가 저술한 것과 원동중이 저술한 삼성기가 있음	일제때 압수·소각 한단고기 편철
유기(留記)	고구려 초 유기 100권 존재	전하지 않음
신집(新集)	고구려 영양왕때 이문진 신집 5권 편찬 (AD600년)	전하지 않음
국사(國史)	신라 거칠부(居柒夫), 545년 법흥왕의 명으로 편찬	전하지 않음
신라국기 (新羅國記)	당영호징의 신라국기	전하지 않음
서기(書記)	백제 고흥(高興) 저, 근초고왕의 명으로 저술	전하지 않음
구삼국사 (舊三國史)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전함	전하지 않음

* 징심록, 신집, 구삼국사 발견 가능성 높음

4) 발해, 통일신라, 고려의 역사서

사서명	세부내용	비 고
* 발해		
단기고사 (檀奇古史)	대조영 아우 대야발 저 (AD 719년 완성) → 1959년 기해 복간본 현존 (단재 신채호)	원본 미발견
* 통일신라		
제왕연대력 (帝王年代曆)	AD 890년경 진성여왕 20년경 문창후, 고운 최치원 저, 1929년 필사본 현존, 홍종국씨 소장	원본 미발견
* 고려		
조대기 (朝代記)	AD926년 발해(대진국) 멸망시 군자 대광현(大光顯) 등 유민들이 가지고 온 고조선 역대왕조실기 (배달유기를 전수한 듯)	일제때 압수.소각
조대기 계승 저자미상 도가사서	표훈천사(表訓天詞), 도증기(道證記), 대변경(大辯經), 동천록(動天錄), 지화록(地華錄), 고조선비기(古朝鮮秘記), 삼성밀기(三聖密記), 지공기(誌公記), 삼한습유기(三韓拾遺記), 신선전(神仙傳)	일제때 압수.소각
진역유기 (震域遺記)	3권, 고려말엽, 청평도사 이명(李茗) 저술. 조대기를 계승	일제때 압수.소각
단군세기 (檀君世記)	AD1363년 고려 공민왕 시절 행촌 이암 저술, 저술처인 강화도 해운당 병풍바위 확인.	일제때 압수.소각 한단고기 편철
북부여기 (北夫餘紀)	고려 공민왕때 휴애거사 범장(休崖居士 范樟) 저술 *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 - 금성범씨 문중 소장 * 원천석(元天錫)과 함께 화해사전(華海師全) 편집	일제때 압수.소각 한단고기 편철
7대실록 (七代實錄)	황주량(983~1046)이 현종의 명으로 7대왕조의 사적을 수록한 36권의 책을 편찬 (고려사) *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고려왕조실록도 소실된 것으로 보임 * 현재 고려사와 고려사 절요만 전함	전하지 않음
단군기 (檀君記)	고려 고종 46년	몽고난때 소실
해동고기 (海東古記)	고려 고종 46년	몽고난때 소실

* 7대 실록 발굴 가능성 높음

5) 근세조선의 역사서 목록

사서명	세부내용	비 고

* 근세조선

규원사화 (揆園史話)	AD1675년 조선 숙종때 북애자(北崖子) 저술. 진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음을 확인함. → 조대기, 진역유기를 기본으로 함	진본 있음
태백일사 (太白逸史)	중종때 괴산 이맥 선생 저술. 삼신오제본기, 한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관경본기, 소도경전본훈,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 고려본기가 포함되어 있음.	일제때 압수.소각 한단고기 편철

* 일제강점시

한단고기 (桓檀古記)	AD1911년 운초 계연수 선생이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합본하여 저술. 운초 선생은 일제 밀정에 의해 살해당함.	한암당 이유립 복원
신단실기	1914 김교헌 저	
동사연표	1915 어윤적 저	
조선사략	1924 김종한 저	
대동사강	1928 김 광 저	
해동춘추	1957 박장현 저	
조선사략	1938 윤재구, 서계수 공저	
조선역사	1934 이창환 저	

* 광복후

민족정사	윤치도 저	

* 한단고기 원본 발견 가능성 높음

5. 시대별 역사 요약

1) 마고(麻姑)시대

始 B.C 9,137 (11,149년전) 終 B.C 7,197 (9,209년전)

마고(麻姑)시대

마고(麻姑)	궁희(穹姬)	황궁(黃穹)	천산주(天山洲)	수인(燧因, 有因)
		청궁(靑穹)	운해주(雲海洲)	
	소희(巢姬)	백소(白巢)	월식주(月息洲) 지소(支巢)의 '오미(五味)의 변'	
		흑소(黑巢)	성생주(星生洲)	
시원	1세	2세		3세

① 마고대성의 주인 '마고(麻姑)' : 연대를 알수 없으나 적어도 일만천년전이다.

신라의 충신 박제상이 저술한 '부도지'를 보면 우리역사는 여신 '마고'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음(파장)'으로부터 세상이 창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고대성은 티벳고원의 '수미산'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 [그림]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있었던 마고석상

② 마고의 두딸 궁희(穹姬)와 소희(巢姬)

마고는 궁희씨와 소희씨의 두딸을 두었는데, 궁희씨는 황궁씨와 청궁씨를, 소희씨는 백소씨와 흑소씨를 각각 낳아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 이때는 단성생식(單性生殖, 암수동성)으로 성별의 구분이 없을 때이다.

③ 지유(地乳)와 지계(地界)에 나타난 인간 최초의 조상 '12인'과 '3천인'

마고대성의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황궁, 청궁, 백소, 흑소씨가 '음을 조율(율려, 律呂)'하여 '기(氣)'를 돌리니 마침내 성중에 '지유(地乳, 氣)'가 생겨났다.

마고가 네천인과 네천녀에게 명하여 옆구리를 열어 출산케하니 각각 삼남삼녀을 낳아 12명의 자손을 두었으니, 이가 지계(地界)에 처음 나타난 인간의 조상이었다.

몇 대를 지나는 동안 지유를 통하여 자손을 길러내니 성중에는 사람이 점차 불어나 3,000인이 되었다.

④ 오미(五味)의 변(變)

백소(白巢)씨족의 지소(支巢)씨가 지유를 먹으러 갔다가, 사람이 많아 다섯번을 양보하고 그냥 돌아오는 길에, 배가고파 어지러워 쓰러져 성의 난간을 잡았는데 손에 포도가 쥐어져 배가고픈 나머지 포도를 먹게 된다.

지소씨가 맛이 좋다고 선전하자 사람들이 포도를 많이 먹게 되었다.
* 오늘날의 포도개념이 아니다.

포도를 먹게 된 사람들은 모두 짐승의 형상을 닮은 이(치아)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버렸고, 피와 살이 탁(濁)해져서 천성을 잃어버리고, 끝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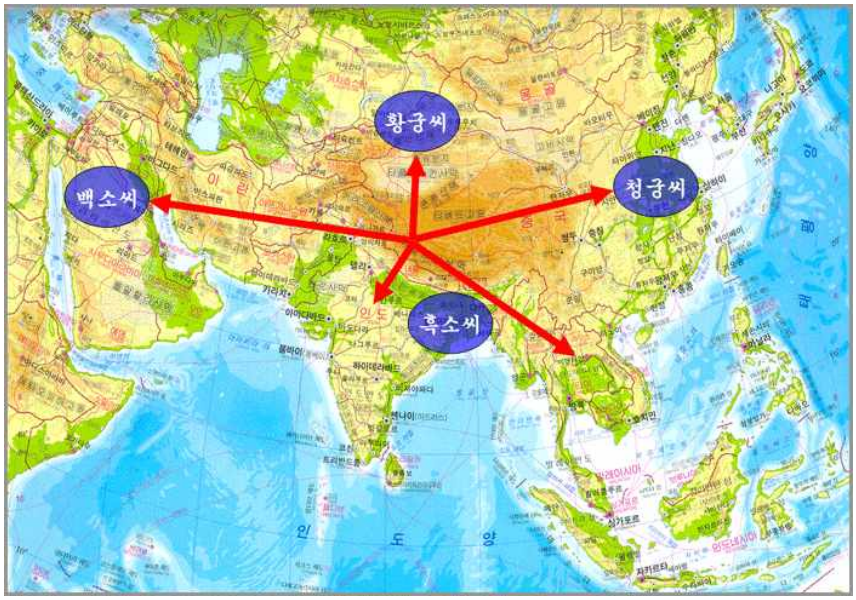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인간이 다른생명을 강제로 먹어버린 탓이었다. 이때부터 짐승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多生獸想, 다생수상)

이에 지소씨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무리를 이끌고 성을 나와 먼곳으로 가 숨어 버렸다.

* 지소(支巢)씨는 서쪽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자세히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⑤ 마고의 격노(激怒)와 분거(分居) : 11,148년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마고가 지소씨가 강제로 다른생명을 취한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마고대성의 성문을 닫아 버리니, 황궁·청궁·백소·흑소씨가 '오미의 변'에 대한 죄를 씻고자 성문을 나와 동서남북으로 분거를 하게 된다.



장녀이신 황궁씨가 고별(告別)하여 이르기를 '여러분의 미혹(迷惑)함이 심대(甚大)하여 성상(性相)이 변이(變異)한 고로 어찌 할 수 없이 성중(城中)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소. 그러나 스스로 수증(修證)하기를 열심히 하여,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복본(復本)할 것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오' 라고 하였다.

* 마고 계보도

마고(麻姑)			
궁희(穹姬)		소희(巢姬)	
황궁(黃穹)	청궁(靑穹)	백소(白巢)	흑소(黑巢)
백소(白巢)씨 후손 지소(支巢)의 '오미(五味)의 변'으로 출궁			
천산주(天山洲) 천산산맥 지역 우리민족의 본류	운해주(雲海洲) 구름바다 지역 중원 지역	월식주(月息洲) 달이지는 지역 중근동 지역	성생주(星生洲) 별이 뜨는 지역 인도, 동남아 지역

⑥ 황궁씨가 수증복본(修證復本)의 맹세를 하고 천산주(天山州)로 나가다.

황궁씨가 모든 사람들 중에 어른이었으므로 백모(白茅, 띠풀)를 묶고 마고 앞에 사죄하여, 오미(五味)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복본할 것을 서약하였다. 황궁씨는 천부(天符)를 신표(信標)로 나누어주고 뽕잎(칡이 아니다)으로 식량을 대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사방에 분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우리민족은 바로 '마고 → 황궁씨'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고 있는데, 황궁씨는 북쪽 문을 나가 춥고, 매우 위험한 땅 '천산주'로 나갔다. 자진(自進)하여 어려움을 취해 복본(復本)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맹세였다.

황궁씨는 천산주에 도착하여 해혹(解惑)하여 복본(復本)할 것을 서약하고, 무리에게 수증하는 일에 근면하도록 고하였다. 곧 장자 수인(燧因 또는 有因)씨에게 명하여 인세(人世)의 일을 밝히게 하고, 차자와 삼자로 하여금 모든 주를 순행하여 마고의 역사를 전하도록 하였다.

황궁씨가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되어 길게 조음(調音)을 울려 인세의 혹량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마고대성 회복의 서약을 성취하였다.
* 천산의 서왕모와 신비의 꽃 천산설련은 바로 황궁씨의 흔적이다.

이에 수인씨(유인씨)가 천부삼인을 이어 받아 사람들에게 화식(火食)하는 방법을 가르치니 모두가 기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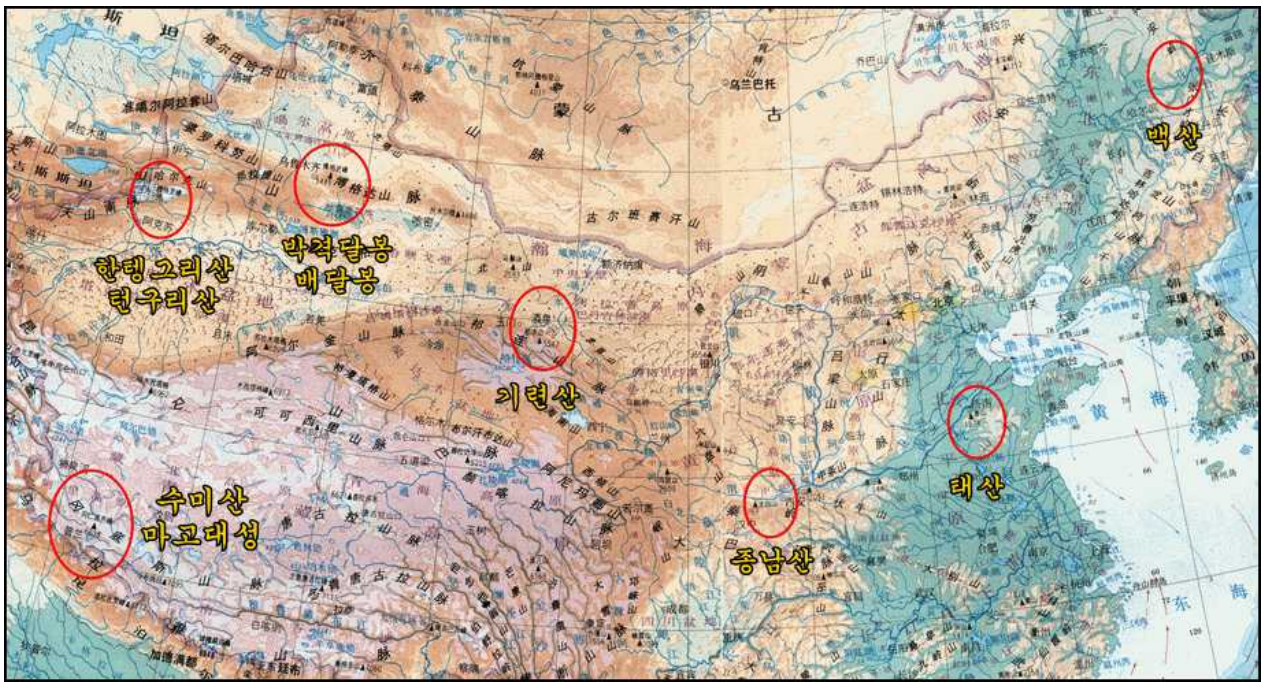
수인씨가 천년을 지내고 나서, 아들 한인(桓因)씨에게 천부를 전하고 곧 산으로 들어가 계불(禊祓)을 전수(專修)하며 나오지 아니하였다.

한인씨가 천부삼인을 이어받아 인세를 증리(證理)하는 일을 크게 밝히니, 이에 햇빛이 고르게 비추고, 기후가 순조로와 생물들이 거의 안도함을 얻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괴상한 모습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는 3세(황궁, 유인, 환인)가 수증하기 삼천년에 그 공력이 거의 없어질 만큼 써버렸기 때문 이었다.

* 수미산, 천산지역 위치도

- 부도 이동도 : 수미산 → 턴구리산 → 배달봉 → 기련산 → 종남산 → 태산 → 백산



* 천산 한등격리봉(한턴구리산) 박격달봉(배달봉)

- 황궁씨가 도착한 곳이다. 천산 박격달봉에는 천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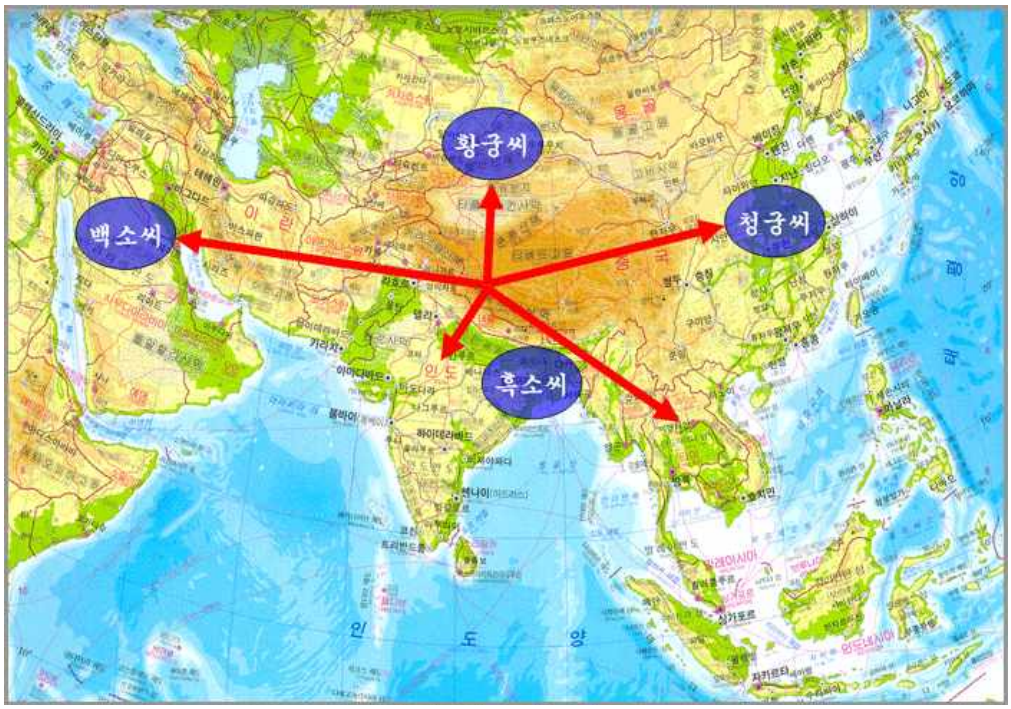
⑦ 대홍수 : 만년전의 사건으로 보여진다.

종족들이 분거후 천년이 지났다. 마고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근본을 잊은 제족들이 서로 싸웠다.

마고께서 궁희와 소희와 더불어 대성을 보수하여, 천수를 부어 성내를 청소하니, 청소한 물이 동과 서에 크게 넘쳐 운해주(중원)와 월식주(중근동)의 사람이 많이 죽었다.

* 이 사건은 '만년전의 일'로, BC2456년경 '노아의 대홍수'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 청궁씨의 운해주(중원)와 백소씨의 월식주(중근동)



2) 한인(桓因)시대 : 7대 3301년 (BC 7197 ~ 3897)

始 B.C 7,197 (9,209년전) 終 B.C 3,897 (5,909년전)

한인(桓因)시대

안파견 (安巴堅)	혁서 (赫胥)	고시리 (古是利)	주우양 (朱于襄)	석제임 (釋堤壬)	구을리 (邱乙利)	지위리 (智爲利)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 끝자가 리(利)자로 끝나는 분은 여성(女性)으로 보여진다.

한인시대는 민족사서에 기록된 우리민족 최초의 나라로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원전 7197년에 개국되어 7분의 한인이 3,301년(또는 63,182년) 동안 통치하였으며,
- 나라가 넓어 12개의 나라로 나누어 다스렸으며,
- 그 나라의 크기는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리에 달하는 대국이었으며,
- 백성들은 아홉 개(구한 九桓, 구이 九夷라고 함) 부족과 64개 무리로 이루어졌으며,
- 이를 한(환)인씨(桓仁氏)의 나라 즉 한(환)국(桓國)이라 합니다.

* 참고 : 63,182년을 근거로 유왕기 선생은 "7만년 하늘민족의 역사"라는 책을 저술 하였는데 지구의 사라진 고대문명인 아틀란티스나 레므리아, 무우대륙의 역사와 함께 추가로 연구해보아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원래 우리는 삼신(또는 마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삼신할머니로 살아있는 삼신은 우주의 창제자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일만년천년 동안 주재하여 온 분인데, 한인시대는 삼신이 주재하시던 천상의 역사가 지상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신과 마고는 동일 개념임)

부도지에 의하면 수인(유인)씨의 아들이 바로 한인(桓因)씨인데, 동남동녀 800명을 이끌고 흑수(黑水)와 백산(白山)에 내려와 한국을 다스렸고, 한인은 천산(天山)에 살면서 도(道)를 얻어 병 없이 오래 살았다고 하고, 소도(蘇塗)에 살면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을 주관하고 하늘을 대신하여 이치대로 사람들을 교화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파나류산(波奈留山) 아래와 천해(天海) 동쪽에 이르는 넓은 땅에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 흑수 : 중국 감숙성 삼위산 인근 흑수
* 백산 : 중국 천산으로 보여짐, 백두산, 태백산 등 설 다양
* 천산 : 중국 천산산맥에 있는 천산
* 파나류산 : 천산, 파미르 고원 또는 만주의 완달산 이라는 설이 있음
* 천해 : 바이칼호를 지칭한다는 설이 다수설임

또 다른 내용으로는 한단고기 삼성기 하편에 보면 인류의 조상은 나반(那般)인데 처음에 아만(阿曼)을 아이사타(阿耳斯陀)에서 만나 꿈에 하느님의 가르침을 얻어 스스로 혼례를 치뤘다고 합니다. 한국(桓國)의 백성이 모두 그의 자손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 참고 : 성경 창세기 내용과 비슷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아이사타 : 시베리아 설이 있음. 부도지 내용으로 보면 천산산맥 유역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한국에는 5훈(五訓)이 있었는데 “첫째 성실하여 거짓이 없어야 하며, 둘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하며, 셋째 효도하여 부모를 어기지 않아야 하며, 넷째 깨끗하고 의로워 음란하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 겸손하고 온화하여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곱분의 한인의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	한 국	동, 서양
B.C 7197	제1세 한인 안파견(安巴堅) 즉위 제2세 한인 혁서(赫胥) 제3세 한인 고시리(古是利) 제4세 한인 주우양(朱于襄) 제5세 한인 석제임(釋堤壬) 제6세 한인 구을리(邱乙利) 제7세 한인 지위리(智爲利)	역사 없음 * 중국 서안 동남쪽, 티벳 수미산 피라미드 : 일만년전 것이라 주장하나 미공개중 * 내몽고 적봉시 홍산문화 : 8천년 전 유물이 발굴되고 있으나 동이문화로 밝혀짐

한국 12연방국의 국명에 대해서는 태백일사 한국본기에 나오는데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사납아국, 선비국, 수밀이국” 등입니다. 이중 수밀이국은 수메르 문명과 연관성을 주장하여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 정확한 위치는 확인 어려우나 남북 5만, 동서 2만리라 기록하고 있어 아시아 전체(또는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사에도 일부 나라 이름이 등장한다.(진서 사이전 등)

한국시대의 통치강역

3) 한웅시대(배달 또는 신시시대) : 18대 1565년 (BC 3897 ~ 2333)

한인시대 제 7세 지위리(智爲利) 한인때 사람은 많아지고 산물이 적어서 어려워지자 임금께서 삼위산(三危山)과 태백산(太白山)에서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겨, 이를 맡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 삼위산 : 중국 돈황 유역에 있는 산으로 한인께서 반고라는 사람을 삼위산 납림동굴로 보냄
* 태백산 : 중국 천산산맥의 천산, 돈황유역의 삼위산, 장안유역의 태백산, 태행산맥 오대산 유역의 태백산, 남한의 태백산, 북한의 백두산, 하얼빈 백산 등 여러 설이 많다.
  ☞ 부도이동 : 티벳 수미산 → 신강성 천산 → 감숙성 기련산 → 서안 종남산, 태백산 → 산동성 태산 → 하얼빈 백산

이때 임금의 아들 중 한웅이라는 분을 모두 천거하니 임금께서 한웅에게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며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나라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 천부인 : 청동거울, 청동칼, 청동방울 (또는 '북')이라는 설이 있으나, 천부는 물질로 형상화 된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성 원리 그 자체' 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처음 나라를 세운곳이 "신시(神市)"이고 나라이름을 "배달(倍達)"이라 하였습니다. 중국정사인 사마천 사기에는 14대 치우한웅이 통치한 나라가 "구리(九黎)"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신시, 구리, 한웅시대는 모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배달시대의 통치강역 (한국의 영역과 동일)

배달국 18대 한웅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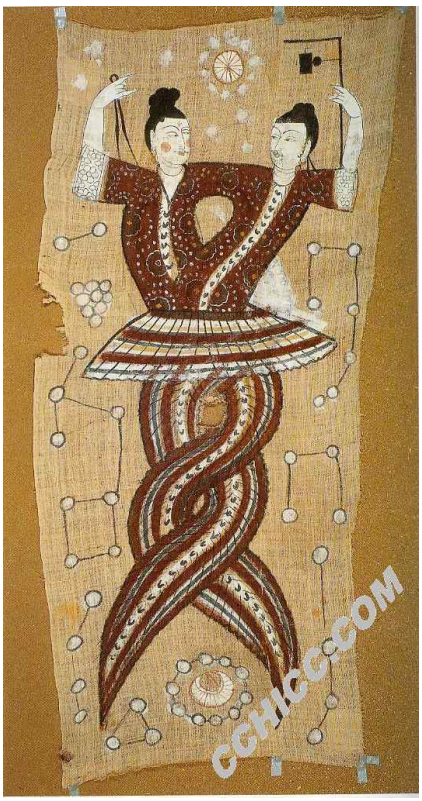
연대	한 국	동, 서양
B.C 3897	**제1세 한웅 거발환(居發桓) 즉위**. (개천) - 한국 제 7대 지위리(智爲利) 한인의 아들. - 신시(神市에) 도읍하고 나라를 배달이라 함. - 역법(曆法)을 만들어 365일을 1년으로 함. -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강론함. - 공수(貢壽), 두열(頭列)이라는 하늘을 찬양하고 백성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음악이 있었음. - 산목(算木)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음.	
3804	**제2세 한웅 거불리(居弗理) 즉위**	
3718	**제3세 한웅 우야고(右耶古) 즉위**	
3619	**제4세 한웅 모사라(慕士羅) 즉위**	

천부경(天符經) 81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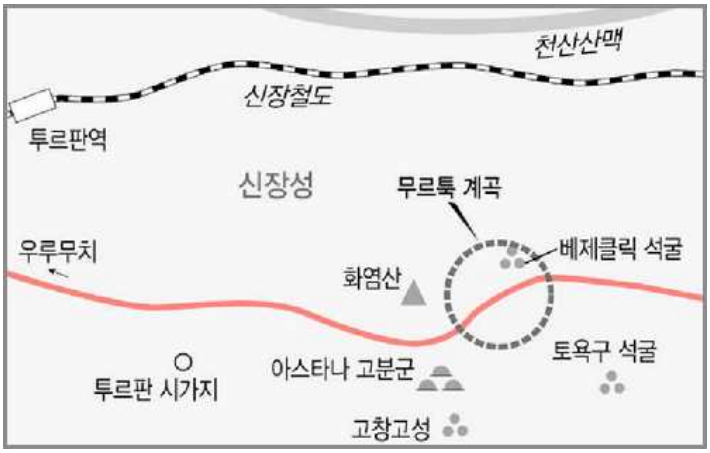
一 始 無 始 一 析 三 極 無 盡 本
일 시 무 시 일 석 삼 극 무 진 본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一 積 十 鉅 無 櫃 化 三
천 일 일 지 일 이 인 일 삼 일 적 십 거 무 궤 화 삼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대 삼 합 육 생 칠 팔 구
運 三 四 成 環 五 七 一 妙 衍 萬 往 萬 來
운 삼 사 성 환 오 칠 일 묘 연 만 왕 만 래
用 變 不 動 本 本 心 本 太 陽 昂
용 변 부 동 본 본 심 본 태 양 앙
明 人 中 天 地 一 一 終 無 終 一
명 인 중 천 지 일 일 종 무 종 일

연대	한 국	동, 서양
3512	**제5세 한웅 태우의(太虞儀) 즉위** - 12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막내가 '태호복희' * 중국이 삼황오제의 제일 첫 번째 조상으로 차용해감 - 복희(伏羲)씨는 팔괘(八卦)를 만들고 천부경을 바탕으로 한역(桓易)을 지음. - 복희가 서쪽 제후가 되었다가 여동생 여왜(女媧)가 이었고 그뒤를 이어 염제신농이 제후가 됨. * '복희·여와도'의 주인공	B.C 3500경 수메르인 : 메소포타미아 진출 이집트 : 나일강 유역에 도시 국가 분립
3419	**제6세 한웅 다의발(多儀發) 즉위**	
3321	**제7세 한웅 거련(居連) 즉위**	

복희 · 여와도



* 신강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에서 발굴된 복희여와도
* 서양인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문양으로 사용중이다.
  → 부도지에 의하면 백소씨족인 '지소씨'의 후손들



연대	한 국	동, 서양
3240	**제8세 한웅 안부련(安夫連) 즉위** - 신하인 소전(小典)을 강수(姜水)에 보내어 군사를 감독하게 함. * 강수 : 섬서성 장안유역의 강 - 이때 따라간 소전의 아들 신농(神農)이 주변의 온갖 약초를 맛보고 동양의학의 시조가 됨. 태호의 여동생 여왜(女媧)의 뒤를 이어 신농이 제후가 됨. 강수에 살아 성을 강씨라고도 함. * 중국이 삼황오제의 두 번째 조상으로 차용해감	
3167	**제9세 한웅 양운(養雲) 즉위**	
3071	**제10세 한웅 갈고(葛古) 즉위** - 독로한(瀆盧韓) 한웅이라고도 함 - 신농(神農)씨의 나라와 국경을 정함	
2971	**제11세 한웅 거야발(居耶發) 즉위**	
2879	**제12세 한웅 주무신(州武愼) 즉위**	2850 메네스왕 상·하 이집트 통일 *피라미드 건축 주체가 동양인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음
2774	**제13세 한웅 사와라(斯瓦羅) 즉위**	

연대	한 국	동, 서양
2707	**제14세 한웅 자오지(慈烏支) 즉위** - 일명 치우(蚩尤)한웅, 붉은악마 도깨비 문양의 주인공 * 무덤이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위치대로 산동성 동평에서 발굴되어 최근 복원 됨 - 창과 투구 등 쇠로 만든 병기로 유망(楡罔)과 헌원(軒轅)을 이기고 서쪽으로 국토를 넓힘. 자부선생(紫符先生)이 삼황내문(三皇內文)을 헌원에게 줌. - 칠성력(七星曆)이 시작되었고(칠정운천도, 七政運天圖) 청구(靑丘:산동성)로 도읍을 옮김(태산) - 사마천 사기에 동두철액(銅頭鐵額)의 주인공으로 나옴 * 동두철액 : 청동으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 최근 중국이 삼황중에 태호복희를 빼고 치우한웅을 차용해 가 자기들 3대 조상이라 주장(동북공정에 이용 중)	2679경 중국시조 황제 헌원(軒轅) 즉위 *헌원은 안부련 한웅때 신하였던 소전의 후손 ※ 중국 3대 조상 염제신농 : 동이시조 치우한웅 : 묘족시조 황제헌원 : 한족시조 '동이=묘족=치우'관계를 중국공산당은 자세히 모른다.

치우한웅

묘족들이 건설한 시조 '치우한웅' 동상

산동성 동평 치우비석 및 복원된 치우무덤

연대	한 국	동, 서양
2598	**제15세 한웅 치액특(蚩額特) 즉위** - 일명 티베트 한웅 - 티벳에 신선도를 전해주고 이후 700년 동안 봉국으로 다스렸다는 주장도 있음 (서경보 스님 주장) - 티벳 승려들의 주문 '차우타라'는 티벳말로 "치우를 모시면 행운이 온다"는 뜻이라 함 (티벳과 우리는 언어가 비슷)	
2509	**제16세 한웅 축다리(祝多利) 즉위**	2500 메소포타미아 우르 제1왕조 성립 2500 인더스문명출발 (~ 1500)
2453	**제17세 한웅 혁다세(赫多世) 즉위**	2480 이집트 제 5왕조 성립
2381	**제18세 한웅 거불단(居弗檀) 즉위**	2350 이집트 제 6왕조 성립
2333	배달나라는 18대 역년 1565년으로 끝나고 **단군조선 시대 시작**	2357 당요(唐堯) 즉위

4) 단군조선시대 : 47대 2096년 (BC 2333 ~ B.C 238)

한웅시대 18대 거불단 한웅의 뒤를 이어 단군왕검이 나라를 이어 단군조선 시대를 열고, 47분의 단군이 2096년 동안 삼한(진한, 마한, 변한)으로 나누어 통치를 하였습니다.

□ 단군(檀君)이 직접 통치한 진한 역대표

대수	단군명	재위년수	서력(BC)	비 고
1	왕검 王儉	93	2333	거불단 한웅의 아들 (4345년전)
2	부루 扶婁	58	2240	단군 태자
3	가륵 嘉勒	45	2182	부루 태자
4	오사구 烏斯丘	38	2137	가륵 태자
5	구을 丘乙	16	2099	양가(羊加)
6	달문 達門	36	2083	우가(牛加)
7	한율 翰栗	54	2047	양가(羊加)
8	우서한 于西翰	8	1993	-
9	아술 阿述	35	1938	우서한 태자
10	로을 魯乙	59	1950	우가(牛加)
11	도해 道海	57	1891	로을 태자
12	아한 阿漢	53	1834	우가(牛加)
13	흘달 屹達	81	1782	우가(牛加)
14	고불 古弗	80	1721	우가(牛加)
15	대음 代音	51	1661	혹은 후흘달(後屹達)
16	위나 尉那	58	1610	우가(牛加)
17	여을 余乙	88	1552	위나 태자
18	동엄 冬奄	49	1484	여을 태자
19	구모소 緱牟蘇	55	1435	동엄 태자
20	고홀 固忽	43	1380	우기(牛加)
21	소태 蘇台	52	1337	고홀 태자. 색불루에게 양위
22	색불루 索弗婁	48	1285	우현왕(右賢王) 고등(高登) 손(孫)
23	아홀 阿忽	76	1237	색불루 태자

대수	단군명	재위년수	서력(BC)	비　　고
24	연나 延那	11	1161	아홀 태자
25	솔나 率那	88	1150	연나 태자
26	추로 鄒魯	85	1062	솔나 태자
27	두밀 豆密	26	997	추로 태자
28	해모 奚牟	28	971	-
29	마휴 摩休	34	943	-
30	나휴 奈休	35	909	마휴 태자
31	등올 登屹	25	874	나휴 태자
32	추밀 鄒密	30	849	등올 자
33	감물 甘勿	24	819	추밀 태자
34	오루문 奧婁門	23	795	감물 태자
35	사벌 沙伐	68	772	오루문 태자
36	매륵 買勒	58	704	사벌 태자
37	마물 麻勿	56	646	매륵 태자
38	다물 多勿	45	590	마물 태자
39	두홀 豆忽	36	545	다물 태자
40	달음 達音	18	509	두홀 태자
41	음차 音次	20	491	달음 태자
42	을우지 乙于支	10	471	음차 태자
43	물리 勿理	36	461	을우지 태자
44	구물 丘勿	29	425	백민성(白民城) 욕살(褥薩)
45	여루 余婁	55	396	구물 태자
46	보을 普乙	46	341	여루 태자
47	고열가 古列加	58	295	물리 현손
-	-	-	238	終 (2,249년전)

단군조선 통치강역

단군조선 연방 붕괴후 열국시대

※ 단군왕검의 탄생

- 출처 : 한단고기 단군세기 중에서

고기에서 말한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檀雄)이고 어머니는 웅(熊)씨의 왕녀이며 신묘(B.C2370)년 5월 2일 인시에 밝달나무(檀木)밑에서 태어났다.

* 단웅 : 배달국 18대 거불단 한웅을 말한다.

신인의 덕이 있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겁내어 복종했다. 14세 되던 갑진(B.C2357)년 웅씨의 왕은 그가 신성함을 듣고 그로써 비왕(裨王)으로 삼고 대읍(大邑)의 다스림을 대행 하도록 하였다.

무진년(B.C.2333) 제요도당(帝堯陶唐)때에 단국(檀局)으로부터 아사달의 단목(檀木)의 터에 이르러니 온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 천제(天帝)의 아들로 모시게 되었다.

* 제요도당 : 요임금(B.C2357~2284), 중국의 삼황오제중오제의 4번째. 태평치세의 임금이라 하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단군의 특사 '유소(호)'씨에게 사로 잡혀 옥사한다.

이에 구한(九桓)이 모두 뭉쳐서 하나로 되었고 신과 같은 교화가 멀리 미치게 되었다. 이를 단군 왕검이라 하니 비왕의 자리에 있기를 24년, 제위(帝位)에 있기를 93년이었으며 130세까지 사셨다.

* **연대기** : BC2370. 5.2 인시 탄생 → 2333. 10.3 제위 오름 → 2241.3.15 돌아가심

연대	한 국	동, 서양
B.C. 2333	**제1세 단군왕검 단군조선 건국** - 왕검의 아버지는 배달국 18대 거불단(居弗檀) 한웅이시고, 어머니는 웅씨(熊氏)의 왕녀이며 B.C2370년 5월 2일 인(寅)시에 박달나무(단목檀木) 아래서 탄생 * 檀木 : 하얼빈 태백산 아래, 이유립 해설 → 주) 배달국 말기의 수도는 산동성 유역이므로 산동성 태산일 가능성이 높음 - 10월 3일 백성들이 총회를 열어 임금으로 추대 - 아사달에 도읍 * 후대 왕검성이라 함.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만주 하얼빈 완달산이라 했음. 아사달은 삼신께 제사 지내던 곳 - 맏아들 부루(扶婁)를 태자로 삼고, 단군 8조를 교육함 - 진한은 임검이 직접 다스리고 마한, 번한은 각각 왕을 두어 다스림	2357~2284 **요임금** 중국의 삼황오제중오제의 4번째인 제요도당. 태평치세의 임금이라 하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단군의 특사 '유소(호)'씨에게 사로잡혀 '혹세무민'의 죄를 물어 옥사한다.
2311	- 도읍을 송화강가에 옮김	2284~2224 **순임금** 중국의 삼황오제중오제의 5번째인 제순유우, 단군의 특사 '유소'씨의 아들인데 요의 두딸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배신하여 '우'에게 죽임을 당한다. 태평치세와 거리가 먼 인물이다.
2311	- 요중(遼中)에 열두성을 쌓음	
2284	- 큰 홍수가 일어났으나 팽우가 물을 잘 다스림	
2283	- 강화에 삼랑성(三郞城)과 참성단(塹城壇)을 쌓음	
2267	- 태자 부루(夫婁)를 시켜 도산(塗山)에서 하우(夏禹)에게 오행치수법(五行治水法)을 가르쳐 줌. 태자 부루가 태산(산동성)에 올라 삼신(三神)께 제사 지냄	
2251	- 낭야성(琅耶城)을 개축함. (산동성에 있음)	
2241	- 3월 15일 돌아가심 (재위 24년, 130세)1	

연대	한 국	동, 서양
2240	**제2세 단군 부루(夫婁) 즉위** : '어아가'를 지음	
2238	- 모든 도량형을 관청의 표준에 맞춤. 머리를 땋게 함(단기머리, 댕기머리)	
2231	-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함	
2229	- 칠회력(七回曆)을 만듦. 칠성력을 널리 사용함	
2225	- 남산에 삼일신고 비를 세움	
2223	- 1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 가륵을 태자로 삼음	
2221	- 밭에 벼를 심어 경작함. * 부루단지 : 햇곡식을 넣어 보관하는 풍습 유래	
2215	- 순임금의 아들인 상균이 고국인 조선에 돌아옴. 삼신전을 지어 한인, 한웅, 단군의 세신위를 봉안하고 제사지냄	B.C2205 우(禹)가 하(夏)나라 건국

2182	**제3세 단군 가륵(嘉勒) 즉위 (부도지에는 읍루 浥婁)**	우가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 단을 설치하고, 유호씨를 공격하니 강소성 모산에서 죽였다. 아들 계(啓)가 항거하였다.
2181	- 을보륵(乙普勒) 박사가 한글의 전신인 국문정음(國文正音) 38자를 만듦 (가림토).	
2180	- 고설(高挈)에게 배달유기(培達留記)를 쓰게 함.	
2177	- 색정(索靖)을 약수(弱水)에 보내어 흉노(匈奴)의 조상이 됨.	
2153	- 25년 만에 건청궁(乾淸宮)을 완성함 * 동서 6백간, 남북 1백간	

2137	**제4세 단군 오사구(烏斯丘) 즉위** - 임금의 아우 오사달(烏斯達)을 몽고 왕으로 봉함	
2133	- 원공패전(圓空貝錢)을 만듦.(조개형태 돈)	
2131	- 살수에 조선소를 세움	
2119	- 하(夏)에서 반란이 있어 군사를 보내어 진압함.	
2109	- 기린굴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조의(皁衣)의 관을 씌워줌	

연대	한 국	동, 서양
2099 2087 2084	**제5세 단군 구을(丘乙) 즉위** - 감성관(監星官)에게 혼천기(渾天機)를 만들게 함 - 제천단을 쌓고 무궁화(근화, 槿花)를 많이 심음. (槿花를 진달래로 보는 설도 있음)	2096 슈메르 제3왕조 멸망
2083 2077 2049	**제6세 단군 달문(達門) 즉위** - 하(夏)나라 왕 소강(少康)이 사신을 보내옴 - 열국의 제후들을 상춘(常春)에 모이게 하여 하늘에 제사하고, 신지(神誌) 발리(發理)로 하여금 서효사(誓效詞)를 짓게함 (서효사 : 천제시 사용하는 제문)	2060 우르 제3왕조 시작, 수메르 문명 전성기
2047	**제7세 단군 한율(翰栗) 즉위**	
1993 1987	**제8세 단군 우서한(于西翰 : 혹왈 오사함 或曰 烏斯含) 즉위** - 삼족오가 궁중에 날아 들었는데 날개의 너비가 넉자나 되었다.	2000경 아리아인 서북 인도 이주시작
1985 1981	**제9세 단군 아술(阿述) 즉위** - 태양이 2개 떠오름 - 국법전서(國法全書)를 편찬함.	
1950 1946 1893	**제10세 단군 노을(魯乙) 즉위** - 신원함(伸寃函)을 설치하여 억울한 백성을 구함 - 천문대를 쌓고 감성관을 둠	

연대	한 국	동, 서양
1891	**제11세 단군 도해(道奚) 즉위** - 맏아들 아한을 태자로 삼고 유위자(有爲子)를 태자대부로 삼음 - 신교(神敎)를 개혁하여 신앙을 바로 잡음 - 대시전(大始殿)을 짓고 한웅천황상을 그려 안치함	
1882	- 금강율령(金剛律令) 선포.	
1866	- 하(夏)나라와 수호조약 체결.	
1864	- 열국박물전(列國博物展)을 염.	
1854	- 국민 개병제 실시.	
1836	- 송화강에서 각종 기계를 만드는 작청(作廳)설치	
1834	**제12세 단군 아한(阿漢) 즉위**	1830 바빌로니아, 제1왕조 성립
1805	- 태학관(太學館)을 세워 선비를 양성함.	
1783	- 상(商)의 사절이 처음으로 입조	
1782	**제13세 단군 흘달(屹達) 즉위**	1766 은(殷) 건국, 하(夏) 망함
1780	- 상(商)과 수호통상	
1767	- 지방분권제(地方分權制)를 실시함.	
1767	- 은(殷)과 함께 하나라 걸(桀)을 치고 빈기(邠岐)를 점령하고 거기에 관제(官制)를 설치함 (빈기는 섬서성 지방임)	
1763	- 천지화랑(天地花郞) 양성	
1733	- 오성취루(五星聚婁) : 다섯별이 루성 근처에 모임 * 서울대 박창범 교수가 실현가능성 검증 마침. 논문발표	

연대	한 국	동, 서양
1721 1697 1680 1666 1664	**제14세 단군 고불(古弗) 즉위** - 은(殷)나라 사절 입조. - 자모전(子母錢)을 만들어 통용하게 함. - 인구조사. - 조세율 개정.	1728 함무라비왕 즉위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편찬
1661 1652	**제15세 단군 벌음(伐音) 즉위** - 은나라 왕 소갑(小甲)이 화친을 청함 - 약수(弱水)에 행차하여 금・철・기름을 채취하라 함	
1610 1610 1583	**제16세 단군 위나(尉那) 즉위** - 국정을 크게 쇄신함. - 제후들을 영고탑에 모이게 함.	
1552 1550 1549 1528	**제17세 단군 여을(余乙) 즉위** - 엄년(嚴年)이 쳐들어와서 물리침. - 임금이 마니산에서 제사할 때에 은(殷)나라왕 외임(外壬)이 사신을 보내어 도왔다. - 은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아 북박(北亳)을 치니 하단갑(河亶甲)이 사죄함	1570 이집트 신왕국 시대 1500 인더스 문명 쇠퇴 시작
1484 1465	**제18세 단군 동엄(冬奄) 즉위** - 지백특(支伯特, 티벳) 사람이 와서 방물을 바침	

연대	한 국	동, 서양
1435 1433 1426 1420 1410	**제19세 단군 구모소(緱牟蘇) 즉위** - 국문서당(國文書堂)을 세움 - 패엽전(貝葉錢)을 만들어 쓰게 함. - 닥나무 껍질로 한지(韓紙)를 만듬. - 송화강가에 조선소를 세움	
1380 1377	**제20세 단군 고홀(固忽) 즉위** - 북흉노(北匈奴)가 변방에서 어른 노릇을 하여 군사를 보내어 물리침	
1337	**제21세 단군 소태(蘇台) 즉위** - 은나라왕 무정(武丁)이 색도(索度), 영지(令支)에 침공하므로 물리치니 화친을 청해 옴	1300 은(殷)이 도읍을 옮김
1285 1266 1266 1266 1250	**제22세 단군 색불루(索弗婁) 즉위** - 삼한(三韓)을 삼조선(三朝鮮)으로, 곧 진한(辰韓)을 진조선(眞朝鮮), 마한(馬韓)을 막조선(莫朝鮮), 번한(番韓)을 번조선(番朝鮮)으로 고침 - 단군조선의 남국(藍國)이 강해져서 서쪽으로 빈・기(邠・岐)에 이름. - 여파달(黎巴達)을 보내어 빈기(邠岐)를 점령하고 그곳 유민들과 함께 여(黎)나라를 세웠다. - 변방 장수 신독(申督)이 반란을 일으켜 임금이 영고탑(寧古塔)으로 잠시 피신.	

연대	한 국	동, 서양
1237 1236 1226 1213 1206 1183	**제23세 단군 아홀(阿忽) 즉위** - 은나라 성을 부수고 회대(淮岱) 땅을 평정함. - 돌궐(突厥) 사절이 입조 - 송화강가의 여러 공장을 보수. - 군관학교(軍官學校)를 세워 병학(兵學)을 가르침 - 영고탑을 설치하고 정전법(井田法)을 가르침	1230 모세 이집트 탈출 1200 트로이 전쟁
1161 1154	**제24세 단군 연나(延那) 즉위** - 월남만(越南蠻)이 입조함	
1154 1150 1112	**제25세 단군 솔나(率那) 즉위** - 영고탑(寧古塔)으로 도읍을 옮김 - 북막(北漠)이 쳐들어와서 물리침.	1122 은(殷)이 망하고 주(周) 건국
1105	**제26세 단군 추로(鄒魯) 즉위**	
1062 997	**제27세 단군 두밀(豆密) 즉위** - 천해(天海)에 물이 넘침.	1004 히브리 왕국 건설, 다윗왕 즉위 1000 아리아인, 갠지스강 유역 이주 시작
971 961 954	**제28세 단군 해모(奚牟) 즉위** - 큰 태풍이 있었음. - 빙해(氷海) 여러 제후들이 입조	965 솔로몬왕 즉위

연대	한 국	동, 서양
943 936	**제29세 단군 마휴(麻休) 즉위** - 지진이 일어남.	
909 905 900 874	**제30세 단군 나휴(奈休) 즉위** - 주(周)나라와 수호를 맺음 - 북흉노(北匈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침 - 동돌궐(東突厥)에서 사신이 와서 수로조약 체결	
865	**제31세 단군 등올(登屹) 즉위** - 왕문(王文)이 신전(神篆)을 근거로 새로 글을 만듬.	
849 846	**제32세 단군 추밀(鄒密) 즉위** - 북적(北狄)이 쳐들어 왔으나 물리침	841 주공(周公)·소공(召公)의 공화(共和) 시작
819	**제33세 단군 감물(甘勿) 즉위**	814 페니키아인,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 식민시 건설
795 775	**제34세 단군 오루문(奧婁門) 즉위** - 백건적(白巾賊)의 난이 있어 임금이 잠시 피신함	800 인도의 브라만 세력 확립. 브라만교 창립 800 아테네·스파르타 등 도시국가성립 776 제1회 올림픽 경기

연대	한 국	동, 서양
772	**제35세 단군 사벌(沙伐) 즉위**	770 주(周) 동으로 도읍을 옮김. 춘추시대 돌입 753 로마 건국
769	- 위(魏) 대부(大夫) 백측(伯則) 입조	
748	- 큰 홍수가 있었음	
723	- 언파불합(彦波弗哈) 장군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 구주(九州)의 웅습(熊襲)의 난을 평정	721 이스라엘 왕국 멸망
713	- 견융(犬戎)이 변경을 침입하므로 물리침.	
712	- 임금이 번조선에 행차하여 한달이 지나서 돌아옴.	
707	- 임치(臨淄)에서 제(齊)군사와 싸워 이김.	
704	**제36세 단군 매륵(買勒) 즉위**	
702	- 연(燕)왕이 사절을 보내와 국정을 관찰함.	
677	- 지진과 해일이 있었음.	670 앗시리아 오리엔트를 통일
667	- 협야후(陜野侯) 배반명(裵幣命)이 전선 5백척을 거느리고 일본에 건너가 반란을 평정	
653	- 연(燕)을 치니 화친하기를 청해옴.	
646	**제37세 단군 마물(麻勿) 즉위**	
642	- 방공전(方空錢)을 만들어 사용함.	
637	- 주(周)의 공주를 왕비로 맞음.	612 앗시리아 멸망
591	- 임금이 남쪽 기수(淇水)에서 세상을 뜸	
590	**제38세 단군 다물(多勿) 즉위**	
545	**제39세 단군 두홀(豆忽) 즉위**	565 석가 탄생 551 공자 탄생
535	- 큰 가뭄이 들었음.	525 페르시아, 오리엔트 통일

연대	한 국	동, 서양
509	**제40세 단군 달음(達音) 즉위**	509 로마공화정시작
491	**제41세 단군 음차(音次) 즉위**	500 ~ 479 페르시아 전쟁
471	**제42세 단군 을우지(乙于支) 즉위**	
461	**제43세 단군 물리(勿理) 즉위** - 융안(隆安)의 사냥꾼 우화충(于和沖)이 장군을 자칭하며, 무리 수만 명을 모아 서북 36군을 함락시킴.	469~399 소크라테스
425	**제44세 단군 구물(丘勿) 즉위** - 백민성(白民城) 욕살 구물(丘勿)이 우화충의 목을 베고 장당경에서 즉위	
396	**제45세 단군 여루(余婁) 즉위** - 연나라와 여러 차례 전쟁	
341 338 323 312 304 296	**제46세 단군 보을(普乙) 즉위** - 번조선왕 해인(解仁)이 연(燕)이 보낸 자객에게 시해당함. - 백두산이 울고 천지가 넘침. - 기허(箕허)가 스스로 번조선왕이라 함으로 허락함. - 정권이 외척 환윤(桓允)에게 돌아감. - 도성에 불이 일어나 5천여호가 탐. - 한개(韓介)가 스스로 왕이라 하여, 상장 고열가(高列加)가 의병을 일으켜 쳐부숨.	334 알렉산더 대왕 원정시작 330 페르시아 제국 멸망

연대	한 국	동, 서양
295 291 238	**제47세 단군 고열가(高列加) 즉위** - 견융(犬戎)이 복종하지 않아 군사를 보내어 평정함 - 임금이 왕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감. 이로써 단군조선 47대 2096년의 역사가 끝남	272 로마 이탈리아 반도 통일

※ 북부여(北夫餘) 시대

연대	한 국	동, 서양
239 218 195	**제1세 해모수(解募漱)** - 옛 도읍지 백악산(白岳山)을 습격하고 스스로 임금이라 함. 이로부터 북부여(北夫餘)가 시작됨. - 창해(滄海)의 장수 여홍성(黎洪星)이 진시황(秦始皇)을 저격했으나 명중 못함. -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망명해 옴.	221 진시황(秦始皇) 중국 일부 통일 202 유방(劉邦)이 진(秦)을 멸하고 한(漢) 건국 200 한(漢), 장안(長安) 천도
194	**제2세 모리수(慕離漱) 즉위**	
169	**제3세 고해사(高奚斯) 즉위**	
120 108	**제4세 고우루(高于婁) 즉위** - 한(漢)의 무제(武帝)가 쳐들어왔으나 패퇴. * 위만의 손자 우거왕의 번조선과의 전쟁 사건	146 로마 지중해 지배권 확립

연대	한 국	동, 서양
108	**5세 고두막(高豆莫) 즉위** - 한(漢)나라 도적떼들을 쫓아냄	
86	**동부여 1세 해부루(解夫婁) 즉위**	97 사마천, 역사서 사기(史記)완성
59	**북부여 6세 고무서(高無胥) 즉위**	
58	**북부여 망함**	
57	**신라 건국**	
47	**동부여 제2세 금와(金蛙) 즉위**	43 로마 제2회 삼두 정치
37	**고구려 건국**	37 헤롯1세, 유대 통치
18	**백제 건국**	30 로마, 알렉산드리아 정복
6	**동부여 제3세 대소(帶素) 즉위**	4 예수 탄생 2 불교 중국전래

終

일만천년 천손민족의 역사

발행일자 : 마고기원 11,148년 음력 8월 15일(양력 9월 30일)
지 은 이 : 송준희
홈페이지 : http://www.coo2.net
이 메 일 : songjunh@empal.com

본 교재는 비매품 입니다.